

“긴축, 6개월 이상 더 이어질 수도”

이창용 한은 총재 “경기 부양시 부동산 가격만 오를 수도”

“현실적으로 긴축 기조가 6개월보다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기준금리로 삼달리 경기를 부양하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가 7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지속될 것을 시사했다.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심리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에 이어 7차례 연속 동결로 금통위원 전원 일치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서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를 우선 꼽았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과 10월에는 각각 3.7%와 3.8%로 한은의 전망을 비껴가며 목표 물가 도달 시점이 지연됐다는 평가다. 3분기 가계부채도 187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 총재는 간담회 내내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의견을 보였다.

그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향후 통화 긴축 기조에 대한 표현이 “상당 기간 이어간다”에서 “중분히 장기화 이어간다”로 수정된 점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을 전제한 것이 아니다”면서 “6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당분간을 향후 3개월로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보는 시각이 형성됐다”면

서 “몇 개월 유지할지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분히 장기화’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은은 목표 물가 도달 시기를 6개월이 지난 내년 말 이후로 보고 있다. 그는 “우리는 2%대까지 수렴하는 때가 내년도 말이나 2025년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미국은 2025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완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금통위원이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난번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할 때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유가와 금융 불확실성이 높았다”면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인식이 확산됐고, 중동 분쟁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금통위원 6명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은 지난 10월 회의 5명에서 이번에는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서도 긴축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은 물가 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 고려할 때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고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물가가 높아져서 빚을 많이 낸 사람과 소득이 낮은 사람 등 취약 계층이 어려울 것”이라며 “삼달리(경기를) 부양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절대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네 이번 정부가 끝나고 해당 비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 판단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에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내려잡았다. 물가 전망치는 2.6%로 기존(2.4%)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뉴시스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3층서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안지점 개점식이 열렸다.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안지점 개점식

부안군 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부안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북신용보증재단 부안지점이 문을 열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3층(부안군 석정로 255)에 ‘부안지점’을 개점하고, 지난 30일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점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개점식에서 부안지점 직원들은 “부안군 중소기업인의 생존과 성장을 견인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의 다짐을 선언을 하며 의지를 밝혔다.

부안지점 개점으로 그동안 영업시간 중 특별히 시간을 내 김제지점까지 방문해야했던 부안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증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부안지점 개점을 통해 원거리 소재 기업의 시간과 비용측면의 손실 감소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보는 2002년 첫 업무를 시작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북도, 도의회 농산경위 초청 청년 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전북도가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 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청년 창업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전북청장조정재혁신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지역구도 의원을 초청 도 및 시군 관계자와 20여개사 청년 창업기업들이 참석해 청년 창업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30일, 익산에서 열린 김대중 의원 초청 간담회에서는 실시간 창업정보를 알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과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 필요성, 수도권 및 지역 투자사·성공 창업기업과의 교류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특히 청년창업박람회 관련하여 김대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재훈기자

농어촌공,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양성평등 인식 개선 계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정은)는 지난달 30일 오후 양성평등교육 전문인원 문지윤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고위관리자 14명을 대상으로 4대폭



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어르신 한우사골곰탕 나눔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권용학),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연말을 맞아 지난달 30일 효자효모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축산물(한우사골곰탕팩) 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용학 대표이사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추운 겨울 한우사골곰탕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양성평등 인식이 증진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책무, 사건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4대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방안을 점검하며 사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공유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해서는 고위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성숙된 인권의식과 성인지 문화의 정착을 위해 고위직의 4대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김옥기 기자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는 연말을 맞아 효자효모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축산물(한우사골곰탕팩) 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베타원’ 식이섬유 장 질환 개선

농진청, 국산 쌀보리 배변 시간 단축·염증성 물질 생성 억제효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산 쌀보리 품종인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이 배변 시간 단축과 대장염 완화 등 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타원은 2015년에 개발된 국내 최초 베타글루칸 고함유 보리 품종이다.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일반보리보다 약 1.5배 많은 22.2%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염증을 일으킨 동물 대식세포(RAW 264.7 cell)에 베타원 식이섬유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산화질소) 생성을 13% 억제해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독성시험 결과, 처리 농도(0.1~200μg/mL)에서 세포독성은 없었다.

아울러 급성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동물 모델을 이용해 베타원 식이

섬유 추출물을 12일간 급여한 다음 대장의 운동기능을 평가하고 대장 통과 시간과 대장 길이, 체중 감소 정도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베타원 처리 군에서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23%로 대조군(28%)보다 짧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장염이 발생하면 음식물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반복되는 염증으로 대장 길이가 짧아지며 체중도 감소한다. 또한, 베타원 처리 군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염증성 물질 생성도 억제됐다.

이에 따라 하루 섭취 기준량(20~25g)의 30% 이상 보리식이섬유가 함유된 일반식품에 배변 활동 원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김옥기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